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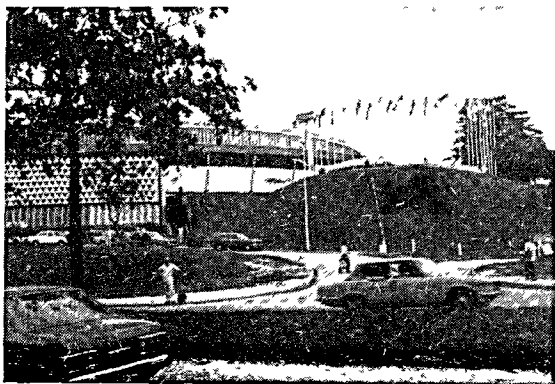
아시아 防衛産業博覽會 參觀記

金 松 雄(防産振興會 部長)

1. 머 리 말

美國의 ISCM(Industrial & Scientific Conference Management, Inc.)과 英國의 Kiver Communications S A.가 共同으로 主擧한 아시아 防衛産業博覽會(ADEX 80: Asian Defence Exposition '80)가 말레이시아 首都인 Kuala Lumpur 市에서 지난 3월 4일부터 3월 6일 사이에 開催되어 우리나라에서도 政府側 人士들을 포함하여 防産業體 및 輸出業體 任職員 一行 21명이 參觀하였다.

一行들은 各己 自己分野에 따라 參觀의 目的이 다르겠지만 그 目的을 大別하여 본다면 防産物資開發趨勢, 先進國技術情報의 獲得, 輸出動向分析, 關心品目에 대한 技術協力打珍 등이라 할 수 있겠으며, 이와 같은 展示會를 통하여 分析·比較가 容易해질 수 있다는 判斷이라면 參觀한 一行들에게는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고 믿는다.



博覽會가 開催된 Stadium Negara의 外部全景

2. 博覽會 背景 및 內容

近年에 와서 ASEAN(東南亞細亞國家聯合) 諸國들이 世界의 政治舞臺에서의 役割이 크게 증대된 이유는 그들의 天然資源, 안정된 政府機構와 함께 무시 못할 人口를 背景으로 해서 政治力을 행사하기 시작해서 부터이다.

지난 30年間은 鬭爭하여 얻은 獨立國家로서 해야 할 일들——예를 들면 社會下部構造의 개선, 自立經濟達成, 人力養成 및 國家産業化——등을 遂行하느라 餘念이 없었지만 이제는 軍事力增強이라는 段階에 이르렀다.

軍事力을 維持하기 위해서는 高度의 信賴性이 요구되는데 여기에는 現代式이며 效率性이 있는 兵器가 供給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兵器産業이 急進展으로 發展하는 오늘 날에 있어서 미사일, 레이더, 항공기, 통신장비 및 特殊彈藥分野에 있어서 最新兵器라 불리우는 것도 10년이 經過되기도 전에 舊式이 되어 버리거나 廢棄되는 사례가 많아 現代式 裝備를 갖춘 軍事力을 유지하기란 매우 어렵고, 더욱이나 自主國防을 하려는 開發途上國으로서의 防産技術의 脆弱性으로 인하여 現代式 兵器를 自力으로 生産할 暇두를 못내고 있다.

莫大한 投資를 하여 어떤 兵器시스템을 開發하여 量産體制에 돌입하여 一線에 배치할 즈음에는 이미 뒤떨어진 兵器가 되어버려 이를 解消하기 위하여서는 外國에서 現代兵器를 購入하는 길을 擇하게 된다.

그러나 外國으로 부터의 兵器購買도 各 先進

國에서 제시하는 各樣各色의 兵器를 선택한다는 것도 쉬운일이 아니다. 專門家가 世界兵器生産國을 일일히 돌아다니면서 自國實情에 적합하고 効果의인 兵器를 골라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하겠다.

이와같은 使用者(使用國)의 負擔과 苦衷을 덜어주기 위하여 마련되는 奉仕의 捷徑(?)은 "Defense Exposition"이라는 名目の 防衛産業博覽會일 것이다.

主催側은 이와같은 東南亞國家들의 實情을 파악하여 防衛物資 마아케팅 對象地域으로 선정하여 말레이아에서 ADEX 80을 開催하게 된것 같다. 더욱이 印度·차이나 半島를 中心으로 한 周邊國間的 高潮된 緊張과 아프가니스탄粉爭을 계기로 美·蘇 冷戰樣相의 再現등을 反映하여 아시아地域에서 최초로 開催된 ADEX 80을 더욱 盛況케 만든 契機가된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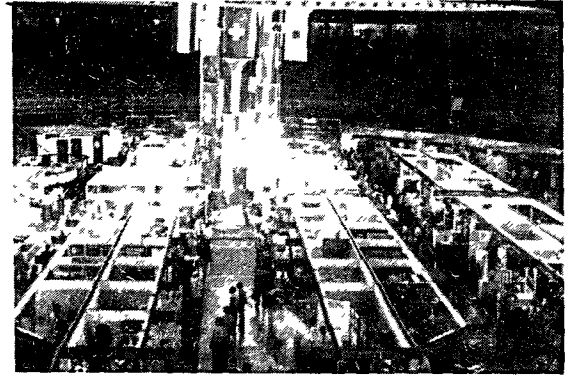
가. 展示會 規模

展示會는 Kuala Lumpur 市內의 南쪽에 位置한 Stadium Negara(國立體育館)에서 開催되었는데 우리나라의 獎忠體育館과 같은 原形 室內體育館이다.

展示品은 競技場 마루바닥, 觀覽席 上層部 그리고 屋外場所로 나누워 業體單位 스탠드別로 전시되었다.

室內에는 冷房裝置가 되어 있었으나 36°C의 外部氣溫에는 견디지 못하여 무척이나 더웠다. 展示會에 참가한 國家와 業體數를 살펴보면, 英國(63), 美國(43), 프랑스(28), 伊太利(15), 필리핀(11), 西獨(8), 벨지움(7), 스웨덴(7), 스페인(5), 캐나다(5), 화란(4), 싱가포르(5), 스위스(2), 오스트리아(2), 핀란드(2), 호주(2), 말레이아(2), 브라질(1), 덴마크(1), 리히텐슈타인(1) 등 20個國의 214個 業體이며 分野 및 品目數로는 銃砲(43), 彈藥(19), 機動裝備(17), 航空機(11), 艦艇(19), 미사일(9), 通信(43), 電子(31), 射統機器(43), 試驗·整備(7), 內燃機關 및 發電(16), 個人裝備(10), 教育訓練(10), 其他(20) 등 298個品目이지만 類似品目까지 포함하면 이보다는 훨씬 많은 品目들이 展示되었다.

航空機, 艦艇, 戰車와 같이 덩치가 큰 裝備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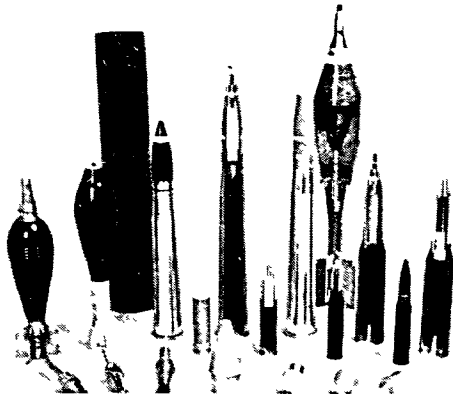


展示場 內部光景

模型 또는 版畫로 대신하였지만 大部分은 實物들을 전시하였다.

拳銃에서부터 潛水艦, 戰鬥機에 이르는 陸·海·空의 兵기들이 總 網羅된 國際綜合防衛産業博覽會로서 과거 유사한 어떤 博覽會보다도 規模가 커서 『진열된 各品目들을 一瞥하는데 만도 한나절이 所要된다』고 우리 一行中의 한사람이 말할정도였다.

또한 世界有名 메이커들 多數가 自社製品들을 소개하였는데 그 이름들을 열거하여 보면 銃砲分野에서는 美國의 Colt Firearms, Smith & Wesson, Maremont, Ramo, Lockheed Electronics, 英國의 Sterling Armament, Royal Ordnance Factories, 스웨덴의 Bofors, FFV, 스위스의 Oerlikon-Buhrle, 伊太利의 OTO-Melara, 프랑스의 CNIM, 오스트리아의 Steyr-Daimler, 벨지움의 PRB, Rheinmetall Int'l 등이며, 미사일分野에서는 프랑스의 Euro Missile, Matra, 英國의 British Aerospace Dynamics, Short Brothers, 美國의 Hughes Aircraft, 伊太利의 OTO-Melara, 戰車 및 裝甲車 등의 機動裝備 分野에서는 美國의 FMC, 英國의 Vickers, GKN Sankey, 프랑스의 Giat, Panhard, 벨지움의 SIBMAS 등이며, 航空機에 있어서는 英國의 British Aerospace, 美國의 Hughes Aircraft, Teledyne-Ryan, 伊太利의 Agusta, 西獨의 Messerschmitt-Boelkow이며, 艦艇 및 潛水艦에 있어서는 英國의 Vosper, 伊太利의 Trieste Club, CNR, 西獨의 Abeking & Rasmussen, FR Lurssen Werft, 프랑스의 C.N.I.M, D.T.C.N, 內燃機關部門에서는 英國의 Rol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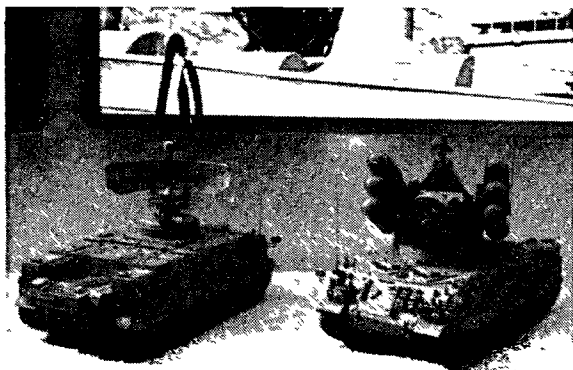


展示된 各種 銃砲彈과 信管

Royce, 美國의 Detroit Diesel Allison, Teledyne-Continental, 西獨의 MTU, 프랑스의 Societe Grossol/SACM 등을 發見할 수 있었다.

光學器材도 相當數에 이르는데 그 중에서도 夜視裝備業體들만 골라보면 美國의 Litton Electron, Varo, Baird, 英國의 Pilkington, Rank Pullin, Barr Stroud, 西獨의 Ernst Leitz가 눈에 보였다.

全體展示裝備中에서 제일 많은 數를 차지한 분야가 通信電子裝備였는데 主要業體만을 열거해 보면, 美國의 Lockheed Electronics, RCA, ITT, Teledyne-Electronics, Westinghouse, E-System, EDO, Lear Siegler, Sperry, Emerson Electric, 英國의 Ferranti, Plessey, Marconi, Decca, Redifon, 和蘭의 Philips, Hollandse Signaalapparaten, 캐나다의 Canadian Marconi, Codalex, 프랑스의 Thomson-CSF, TRT, Marcel Dassault, 덴마크의 B & W Elektronik 등을 볼수 있었다.



미사일·機動裝備를 模型으로 展示한 모습

이밖에도 教育訓練用 Simulator 裝備도 많이 展示되었고 특히 주목되는 것은 Software 部門 (Consultant, Engineering, Training, Education) 도 많이 登場한 점이라 하겠다.

나. 심포지움

博覽會 開催期間동안 午前, 午後로 나누워 各 Session 別로 심포지움이 開催되었는데 여기에도 每日 상황을 이루웠다.

各 Session의 내용은

- 1) 防衛概念의 考察
- 2) 技術
- 3) 地上戰略
- 4) 海上戰略
- 5) 空中戰略
- 6) 通信技術

에 관한 것이었으며, 이를 主題別과 演士를 紹介하면 아래와 같다.

1) 防衛概念의 考察

— 防空 : 美陸軍豫備役 中將

C.J. LeVan

— 江流域戰鬪 : 美海軍豫備役 准將

Arthur W. Price

— 近接空中支援 : 美空軍豫備役 中將

Harold Aaron

2) 技術

— 訓練과 模擬 : 美國 Antekna 社

Terry Bibbens

— 戰子戰 : 美國 Defense Electronics 社

Richard Hartman

— 赤外線技術 : 스웨덴 LM Ericsson 社

L.G. Larsson

— 文字處理 및 言語 : 美國 E-Systems 社

Frank Greenhalgh

3) 地上戰略

— 地對地兵器 : 伊太利 SNIA 社

Emilio de' Lellis 博士

— 低高度防空의 役割 : 英國 British Aerospace 社 L.A. Sanson

— 防空 : 美陸軍豫備役 中將 C.J. LeVan

— 低高度防空에 있어서 將次要求 :

스웨덴 Bofors 社 L. Samuelsson

4) 海上戰略艦

- 對艦미사일 및 對潛水艦미사일 :
美海軍豫備役 准將 Julian S. Lake
- 偵察高速艇開發 : 西獨 Luerssen Werke社
F. Wactemath
- 偵察高速艇을 위한 9LV200 兵器 運用 :
스웨덴 Philips(Peab)社 Bengt-Olof Aas
- 海軍의 對潛水艦誘導兵器 : 伊太利 Eltag社
G. Bedeschi
- 江流域에서의 戰鬪 : 美海軍豫備役 中將
Arthur W. Price

5) 空中戰略

- 空對地兵器 : 美空軍豫備役 中將
Hughes社 W.W. Marshall
- 軍用헬리콥터의 支援役割 :
伊太利 Agusta社 Antonio Giovannini
- 近接空中支援 : 美空軍豫備役 中將
Harold Aaron
- 戰鬪헬리콥터 : 英國 Westland Helicopters
社 M. Farlam

6) 通信技術

- 컴퓨터技術 : 美國 Itek社 John Grigsby
 - C³(指揮, 統制, 通信) : 美空軍豫備役 少將
Robert Edge
 - 無線通信에 있어서 MIC(마이크로웨이브
集積回路) : 英國 Redifon社
R.F. Clarke
 - 海岸防禦에 있어서 効率的인 C³ 시스템 :
英國 Plessey Radar社 Colin Williams
- 성황을 이룬 심포지움이었지만 한가지 아쉬운
點은 他博覽會에서는 Session이 끝나면 Sym-
posium Paper나 Symposium 內容을 수록한 錄音테
이프를 提供하거나 有價販賣을 하는것이 通例인
데 本 심포지움에서는 이와 같은 서비스가 없어
서 이유를 主催側(ISCM)의 擔當副社長인 Fred
Morritz氏에게 물으니 『複雜하고……』 어찌코
하면서 辯明을 늘어놓았다.

다. 博覽會 特徵

從來의 防衛産業博覽會에서는 歐美先進國만이
展示出品을 獨점하다시피 해온 것을 이번 ADEX
80에서는 開催國인 말레이아를 비롯하여 필리핀



필리핀이 전시한 小銃 및 機關銃

및 싱가포르에서도 展示出品을 한것이 異彩롭다.
물론 開催場所가 東南亞地域이니간 그렇다 하
더라도 이와 같이 輸出市場에 뛰어 들었다는 것
은 큰 變化라 하겠다.

이를 지켜본 日本人들에게는 속크를 준 모양
이다. 武器輸出 三原則이라는 日本政府의 方針
으로 武器輸出이 금지된 日本으로서는 배가 상
당히 아픈지 日本의 有力日刊紙인 產經新聞(80.
3. 11)에서는 本 ADEX 80을 『ASEAN 諸國 輸出
에 進出하다』라는 題目으로 크게 報導하면서 『日
本의 水準에 比하면 아직도 멀었지만 數年前까
지만 해도 생각지도 못했던 것으로서 이들 여러
나라의 兵器産業은 대단한 成長度를 나타내고
있으며 日本과 같은 制約이 없으므로 장래는 注
目할만 하다』라고 日本商事人의 말을 引用하면
서 日本의 兵器政策에 變化가 있을 것을 要求하
고 있다.

만약에 日本이 兵器輸出市場에 뛰어든다면?
하고 가정해 볼 때 低開發國家들의 武器體係에
—大變革이 있을 것은 틀림이 없을 것이다.

先進國에서는 有名生産業體도 많이 참가하였
지만 政府機關 및 民間團體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自國의 防衛輸出振興에 앞장을 서고 있
다.

英國의 防衛販賣廳(Defence Sales Organiza-

tion), 防衛産業協會(Defence Manufacturers Association), 프랑스의 防産物資協會(Societe Francaise de Materiels D'Armement), 핀란드의 海外貿易協會(The Finnish Foreign Trade Association), 스페인의 防衛輸出協會(Defex S. A) 그리고 필리핀의 防衛産業協會(Philippine Association of Defense Contractors) 등이 獨自 스탠드를 가지고 自國出品業體와 來訪客에게 情報提供·商談斡旋 등의 各種便宜를 마련하여 주었다.

展示된 裝備를 살펴보면 東南亞水準에 적합한 裝備단을 골라서 出品했는지는 몰라도 最新裝備는 通信電子 및 小銃分野를 제외하고는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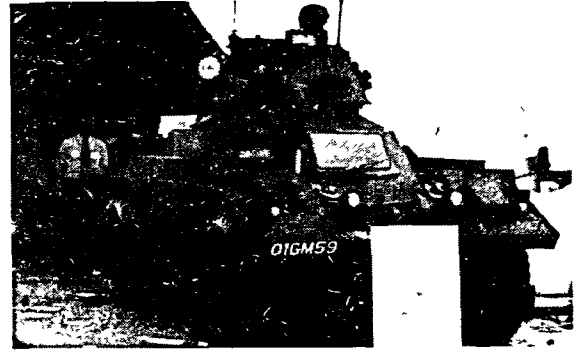
現在 ASEAN 國家들이 원하는 裝備——이는 다시 말하면 마아케팅 對象裝備라고 일컬어질 수 있겠다——들을 主軸으로 한 展示라 할수 있겠는데 이를 뒷받침 할수 있는 최근의 資料(Defence Attache, Jan-Feb 1980; Asian Defence Market)에서는 아래와 같이 綜合的인 마아케팅 分野를 明示하고 있다.

- 裝甲車輛과 對空火器
- 現代式 對戰車兵器(對戰車用 헬리콥터 包含)
- 105mm 砲를 155mm 平曲砲로 代替
- 野戰砲兵用 新世代 射統裝置
- 地上 및 空中用 電子裝備
- 미사일搭載 艦艇 및 通信電子裝備

上記 分野에 있어서 先進供給國에서는 ASEAN 國家들에게 技術移轉(Technical Transfer)——共同生産, 技術提携 및 免許生産——을 통한 販賣活動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樣相이 商談中에 엿보였다.

이와같은 樣相을 ASEAN 國家들은 미리 看破하여 ADEX開催場所를 提供해서 技術移轉에 의한 自體生産을 도모하여 여기에서 生産되는 兵器들을 ASEAN 國家들이 공동으로 購入한다는 産業共同體를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이라고 풀이한다면 이는 지나친 풀이가 될까?

展示된 品目들 중에서 技術開發이 현저한 분야가 小銃兵器라 할수 있는데 그 特長을 보면, 兼用兵器(小銃과 自動小銃, 自動小銃과 機關銃,



屋外에서 展示된 英國의 Panga 裝甲車

步兵用과 警察用)로서의 多目的用途開發과 材質을 FRP로 사용(개머리판과 彈倉)하므로서 兵器輕量化와 銃器形態의 短形化라 할수 있다.

展示場 시설에서도 Press Room, 응급치료실, 複寫室, 保安倉庫, 簡易食堂 및 休憩室 등을 완벽하게 꾸며놓고 各種 便宜를 展示業體나 參觀客에게 提供하였다.

3. 맺음 말

아시아 地域에서는 최초로 개최된 ADEX 80은 東南亞의 高潮된 周邊情勢와 때를 같이하여 急成長하는 아시아의 軍事防衛體制를 겨냥한 博覽會로서 主催側은 물론 展示參加業體 및 參觀客으로서도 놀랄만큼 盛況을 이룬 行事였다.

이번 ADEX 80을 통하여 國際武器販賣의 傾向과 動態를 볼수 있었고 防衛技術의 현황과 開發趨勢를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가 있었다.

이와같이 集約的인 防産博覽會를 통하면 情報入手 및 分析이 가장 빠른 捷徑의 길일 수도 있겠다. 앞으로 우리도 地域을 감안하여 展示會에 적극 참가하여 既存市場 확보는 물론 輸出과도 併行할 수 있는 防産物資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며 國際競爭力 강화를 위해서는 先進國에서 行하는 Credit Sale(延拂輸出) 方式과 플랜트輸出을 좀더 과감히 펼쳐 나가므로서 海外市場을 擴大해 나가야할 것으로 안다.

여기에는 官民合同의 努力이 필요할 것이다.

